홈런 공동선두 SK 로맥, '팬 투표+선수단 투표' 1위

'올스타 왕별' 로맥, 김현수도 제쳤다

총점 49.63…'0.02점차'로 전체 1위
221표 받은 양의지 선수단 투표 최다
정우영 고졸신인투수 최초 '베스트 12'

SK 제이미 로맥이 팬, 선수단 투표 합산 전체 1위로 2019 KBO 올스타전 '베스트 12' 총 24명 중 '최고의 별' 영광을 안았다. 외국인 선수로는 역대 두 번째 최다 득표의 영예를 안은 로맥은 SK 역사상 처음으로 베스트 명단에 이름을 올린 외국인 선수가 됐다. 스포츠동아DB

SK 와이번스 제이미 로맥(34)이 KBO리그 '별 중의 별'로 등극했다.

로맥은 8일 KBO가 최종 발표한 2019 신한은행 MY CAR KBO 올스타전 '베스트 12' 명단 가운데서 전체 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드림 올스타 1루수 부문의 로맥은 팬 투표 56만5614표(46.53%)와 선수단 투표 195표(56.9%)를 얻어 총점 49.63점으로 리그 전체 선수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로써 로맥은 2008년 롯데 자이언츠 소속으로 뛴 카림 가르시아 이후 외국인 선수로는 역대 두 번째 최다득표의 영광을 차지했다. SK 구단 역사상 외국인 선수가 '베스트 12'에 포함돼 올스타전에 출전하는 것 역시 로맥이 처음이다. 20일 창원 NC파크에서 열리는 올스타전의 진정한 주인공이 된 로맥이다.

●김현수·양의지 모두 제친 로맥

KBO를 대표하는 인기 스타들을 모두 제쳤다. 나눔 올스타 외야수 부문의 김현수(LG 트윈스)가 팬 투표 전체 1위(57만4394표·47.26%)에 올랐지만, 로맥이 선수단 투표에서 6표 앞서 순위를 뒤집었다. 선수단 투표에서 189표를 받은 김현수는 총점 49.61을 기록해 로맥과 0.02점의 근소한 차이로 밀려났다. 팬 투표(총 121만5445표), 선수단 투표(총 343표)를 각각 70, 30%의 비율로 합산한 까닭에 두 부문에 걸쳐 두루 많은 표를 받은 로맥이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나눔 올스타 포수 부문의 양의지(NC 다이노스)는 2년 연속 선수단 투표에서 전체 1위(221표)를 차지했지만, 팬 투표(50만7456)를 포함한 총점은 48.55로 로맥에 미치지 못했다. 양의지로선 2016년부터 4년 연속 베스트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는데 만족해야했다.

●고졸 신인 투수 '최초' 베스트 선정 정우영

화려한 데뷔 시즌을 보내고 있는 LG 정우영은 올스타전에서도 남다른 존재감을 뽐냈다. 나눔 올스타 중간투수 부문의 정우영은 총점 48.09(팬 투표 55만8646표·선수단 투표 182표)로 고졸 신인 최초로 투수 부문 '베스트 12'에 선정됐다. 역대 고졸 신인 중 베스트로 선정됐던 선수는 2009년 KIA 타이거즈 안치홍, 2016년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히어로즈) 이정후로 모두 타자였다. 정우영은 투수 최초이자 통산 3번째 선수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

정우영과 함께할 올스타전 '새내기'도 유독 많다. 이번에 선정된 총 24명의 선수 가운데 11명이 프로 데뷔 후 처음으로 베스트 12에 선정됐다. 특히 드림 올스타의 김태훈, 하재훈, 로맥, 고종욱(이상 SK), 호세 페르난데스(두산 베어스)와 나눔 올스타의 타일러 윌슨, 고우석, 이천웅(이상 LG)은 모두 생애 첫 올스타전 무대를 베스트 선수로 서게 됐다.

●단 한명도 배출 못한 한화·롯데·KIA

정규리그 순위 표에서 나란히 8~10위로 밀려난 KIA, 한화 이글스, 롯데 자이언츠는 팬·선수단 투표로 단 한 명의 올스타전 베스트 멤버를 배출하지 못하는 불명예를 썼다. 모두 열성적인 팬덤을 보유한 구단이지만, 초라한 정규리그 성적에 투표 열기까지 차갑게 식었다. 반대로 호성적을 내는 팀에선 올스타 출전 선수가 쏟아졌다. 나눔 올스타에서는 정규리그 4위 LG가 최다 7명, 드림 올스타에서는 단독 선두 SK가 6명을 배출했다.

서다영 기자 seody3062@donga.com

2019 KBO리그 올스타 베스트12

드림 올스타	포지션	나눔 올스타
김광현(SK)	선발투수	▲윌슨(LG)
▲김태훈(SK)	중간투수	▲정우영(LG)
▲하재훈(SK)	마무리투수	▲고우석(LG)
강민호(삼성)	포수	양의지(NC)
▲로맥(SK)★	1루수	박병호(키움)
김상수(삼성)	2루수	▲박민우(NC)
최정(SK)	3루수	김민성(LG)
김재호(두산)	유격수	김하성(키움)
▲강백호(KT)	외야수	김현수(LG)
구자욱(삼성)		이정후(키움)
▲고종욱(SK)		▲이천웅(LG)
▲페르난데스(두산)	지명타자	이형종(LG)

※ ▲는 첫 베스트 12, ★는 최고득점자.

부상에 발목 잡힌 강백호의 두번째 올스타전

팬·선수단 투표 드림 외야수 1위 불구
손바닥 완쾌까지 최대 8주 걸려 불참

KT 강백호

KBO가 8일 발표한 올스타 베스트12 명단에서 드림 올스타 외야수 부문 1위는 강백호(20·KT 위즈)다.

하지만 불의의 부상이 발목을 잡았다. 강백호는 6월 25일 사직 롯데 자이언츠전 수비 도중 펜스의 날카로운 부분에 오른 손바닥이 찍혔다. 6~8주 가량 치료 소견이 나왔고, 올스타전 출장 가능성도 낮아졌다. 강백호는 베스트12 선정 직후 구단을 통해 "부상만 없었다면 올스타전 참가가 도리인데, 부상 회복에 집중하고 있으니 추후 회복 경과를 지켜보고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베스트12 가운데 불참 사유가 있는 선수가 있다면 구단이 KBO에 이를 설명해야 한다. KBO 관계자는 "KT 측에서 강백호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의사를 KBO에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출장 여부는 감독 추천 선수 발표 때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KBO는 11일 경 감독 추천 선수를 발표할 예정이다.

강백호의 야구인생은 이제 막 첫 발을 뗐을 뿐이다. 비록 올해 올스타전 출장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강백호가 전국구 스타로 발돋움한 것은 분명하다. 팬 투표는 물론 선수단 투표에서도 당당히 드림 외야수 1위를 차지했다. KT 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아이돌 그룹 팬들과 연계해 투표를 독려했다. 강백호도 이를 진심으로 감사해했다.

여기에 타 팀 팬들의 투표가 없었다면 강백호의 1위도 없었다.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강백호이기에 앞으로도 올스타 연속 선정 가능성은 높다. 그렇기에 부상 탓에 출장 가능성이 불투명한 올해 상황이 너무나도 아쉬운 강백호와 KT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17억, 11억, 20억, 40억, 16억.. 로또 1등 당첨자들 비결은?

로또플레이 분석번호 받아 구매한 결과 1등 당첨! 가입문의 1666-6645

지난 834회 로또 1등 당첨자 이 씨는 "로또플레이 측에서 문자메시지로 보내준 1등 분석 번호로 로또복권을 구매하였고, 토요일 저녁 8시경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번호 6개가 모두 일치, 로또 1등(16억 9천만 원)에 당첨되는 행운을 얻은 것이다.
이에 이 씨는 로또플레이 골드회원(3년제)으로 가입 후, 업체 측에서 보내준 분석 번호로 1년 동안 한주도 빠짐없이 꾸준히 구매했던 게 로또 1등에 당첨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전했다.

정 씨(47세/여성) 역시 골드회원으로 가입한지 5일만 로또 1등(12억 6천만 원)에 당첨되는 행운을 거머쥐며 큰 화제가 되어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로또플레이 당첨 후기 게시판에는 로또 1등 당첨자라고 밝힌 50대 여성이 40억 로또 1등에 당첨된 것뿐만 아니라 2등과 3등이 동시에 당첨된 인증 사진과 후기를 전하며 '로또플레이'의 신뢰성과 분석 시스템이 주목을 받고 있다. '로또플레이'는 요행을 넘어 정확한 통계와 확실한 당첨 사례들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로또정보 업체다.

로또플레이는 한국 브랜드 고객 만족 지수 1위, 한국 소비자 만족 지수 1위, 한국 소비자 선호도 1위 외 총 15개 부문 대상 수상을 하였고, 실제 1등 당첨자를 배출하면서 지금까지 1등 232회, 2등 1,222회, 3등 40,209회 조합을 배출해내고 있다. 실제 1등 당첨 복권과 당첨금 지급 영수증까지 공개하고 있어 신빙성까지 더하고 있다. 이외에도 수많은 1등, 2등, 3등 당첨 후기들은 로또플레이(lottoplay.co.kr)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이 가능하다.

'로또플레이'는 골드회원으로 가입한 회원님들께 10년이 넘는 분석 노하우와 자체 개발한 1등 분석 시스템(통계기반)을 통해 분석 번호를 매주 핸드폰 문자로 전송해 준다. (20게임/수량 변경 가능)

로또플레이 골드회원 가입 비용은 6개월 62,000원, 1년 88,000원, 3년 158,000원으로 대표번호 1666-6645 전화 한 통으로 가입이 간편하다.
(카드 무이자 5개월 할부 가능)

홈페이지 : LOTTOPLAY.CO.KR
가입문의 : 1666-6645

고객님께서 보내주신 17억 1등 당첨 영수증

로또플레이 가입문의 1666-6645